

‘말’의 수행 양상을 통해 본 피난민 가족의 몰락과 저항의 가능성 — 오정희의 「유년의 뜰」 —

주 지 영*

요약

이 글에서는 「유년의 뜰」에 나타난 다양한 ‘말’에 주목하여 피난지에서 ‘나’의 가족, 특히 ‘오빠’와 ‘나’가 변화하는 모습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2장에서는 학교 교육과 미국 유학을 통한 출세라는 규범을 수행함으로써 주체가 되고자 하는 오빠의 욕망과 좌절을 다룬다. 미국 중심의 서구지향성과 출세지향주의와 같은 인식은 당대 사회, 문화, 관습, 언어, 금기 등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오빠는 그러한 사회 규범이나 관습을 반복적으로 발화하고 행하는 가운데 언어에 예속된 주체로 정립된다. 먼저, 오빠는 영어 교과서의 문장(훗 아 유 두잉)을 읽으며 학교 교육을 통해 출세하고자 하지만 전쟁과 가난, 어머니의 외도 등으로 인해 진학하지 못한다. 주인집 딸로 도회지에서 미국인 집 식모를 하는 서분을 통해 오빠는 생활 영어 문장(아임 낫 라이어)을 익히며 미국인 집의 고용인이 되고자 하나 그것마저 불가능해지자 오빠는 피난지 저잣거리의 사내아이들처럼 비루한 존재로 전락한다.

3장에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질서의 규범을 수행함으로써 주체가 되고자 하는 오빠의 욕망과 좌절을 다룬다. 오빠는 피난지에서 부재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 노릇을 수행하기 위해 어머니의 발화나 정주민 가장들의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인용한다. 처음 오빠는 ‘훗 아 유 두잉’이라고 묻는

* 군산대학교 황룡인재교육원 강의전담교수

호명하는 주체로서, ‘금기-형벌’로 수행되는 가부장제 질서의 발화와 행위를 반복적으로 인용하면서 가족들을 폭력적으로 지배한다. 다음으로 서분과의 관계에서 오빠는 ‘아임 낫 라이어, 아임 어니스트 보이’라고 답하는 호명 당하는 주체가 된다. 서분은 호명하는 주체로서 미국인의 문화와 생활방식 등을 알려주며 오빠를 길들인다. 이 상황에서 오빠는 언니에게 가부장제의 금기를 위반한 ‘더러운’ 자로 규정받으면서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잃는다.

4장에서는 ‘나’의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행위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고, 지배적인 규범과 관습에 저항하거나 이를 전복시키는 전략을 살펴본다. 첫 번째 단계에서 ‘나’는 타인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행위 주체로 구성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 ‘나’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머니와 오빠의 질서를 거부하고 금기-형벌로 인한 무서움을 달래기 위해 ‘먹는다’. 세 번째 단계에서 ‘나’는 어머니와 오빠에 의해 요구되는 ‘말’을 자연과의 소통과 교감에 의해 재맥락화 함으로써 규범을 수행하는 ‘말’에 오염된 인간의 몸을 재해석하도록 이끈다. 네 번째 단계에서 ‘나’는 학교에 들어가면서 오감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을 잃어버리고 흡쳐 먹는 ‘단맛’에 길들여져 학교의 ‘말’을 따라하지만, ‘단맛’을 거부하는 ‘구토하는 몸’을 통해 새로운 아버지의 질서를 내부로부터 전복시킨다.

주제어: 수행성, 오정희, 『유년의 뜰』, 발화 행위, 호명, 저항성, 가부장제, 미국중심주의, 출세지향주의

목차

1. 머리말
2. 미국 중심주의와 출세지향주의를 수행하는 주체
3. 가부장제 질서를 수행하는 폭력적인 주체
4. 말의 질서 거부와 행위 주체의 저항성
5. 뱃음말

1. 머리말

오정희는 196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완구점 여인』이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한 이후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작품 활동을 보여주었다. 오정희의 『유년의 뜰』은 1980년 『문학사상』에 발표된 작품이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듯이, 오정희는 여성의 삶에 주목한 작가이다. ‘일상’과 ‘여성’이라는 키워드로 압축될 만큼 오정희의 소설은 여성의 삶에 대한 관심을 밀도 있게 보여주고 있다. 탄생과 죽음이라는 양면성에 관한 논의나, ‘딸’의 이미지에 근거하여 요나 콤플렉스를 언급한 논의, 비극적 세계인식에 주목한 논의, 삶의 불모성에 주목한 논의, 그리고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여성의 정체성 탐구나 모성성과의 관련성으로 본 논의¹⁾ 등은 ‘여성 존재’와 ‘일상’이라는 커다란 범주 속에서 오정희의 문학세계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은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하되, 『유년의 뜰』에 나타나는 가족, 특히 오빠의 변화와 ‘나’의 변화가 갖는 의미를 동시에 고찰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나’의 성장 과정이 갖는 의미 파악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오빠를 비롯한 가족과 관련된 측면에 대한 논의가 매우 미흡하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오빠를 비롯한 가족과 관련된 측면은 매우 중요한 서사를 이루고 있다.

『유년의 뜰』은 전쟁 시기, 피난지를 배경으로 하여 전개된다. 이 작품에서 전제된 두 가지 조건은 ‘전쟁’과 ‘아버지의 부재’ 상황이다.

1) 김치수, 『전을 그리고 사랑』, 오정희, 『유년의 뜰』, 문학과지성사, 1981.; 김현, 『살의 섬뜩한 아름다움』, 오정희, 『불의 강』, 문학과지성사, 1987.; 김병익, 『세계에의 비극적 비전-오정희의 소설들』, 『월간조선』, 1982. 7.; 박혜경, 『신생을 꿈꾸는 불임의 성』, 오정희, 『불의 강』, 문학과지성사, 1997.; 김경수, 『여성성의 탐구와 그 소설화-오정희론』, 『외국문학』, 1990. 봄.; 심진경, 『오정희 초기소설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 『한국문학과 모성성』, 태학사, 1998.

피난을 떠난 시기부터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가 돌아오는 시기까지 '나'의 가족이 아버지 없이 피난지에서 겪는 일을 담고 있다. '쿵, 쿵 먼 데서 대포 소리'가 들려오고, '피난민 가족들은 물처럼 흘러들어' 오고, 전쟁에 관한 소문이 들려오는 피난지의 마을에서, '나'의 가족들은 피난민 가족들이 그러하듯 '거지', '도둑놈' 취급을 받으며 궁핍한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과정을 다루면서 이 작품은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변화, 특히 오빠의 변화와 '나'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유년의 뜰』에 나타나는 '말'의 의미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사회 규범과 폭력성 등에 주목하여 오빠와 아버지의 귀환 등의 의미를 규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담론적 의미가 '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는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말'을 중심으로 한 발화행위에 주목함으로써 규범을 수행하는 주체와 전복하는 주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작품에는 여러 유형의 '말'이 등장한다. 첫 문장에서부터 오빠가 외우는 영어 문장이 제시된다. 오빠가 외우는 영어 문장은 첫 문장에 나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 곳곳에 퍼져 있다. 오빠의 영어 문장은 당대 사회 규범을 담아내면서, 이를 통해 피난지의 가족의 행위를 단속하는 '금지의 말'과 '소문의 말' 등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는다. '나'는 그런 규범의 질서와 관계된 '말'을 거부한다. 따라서 오빠의 영어 문장, 금기와 소문의 말들, '나'의 말 거부는 『유년의 뜰』에서 '말의 질서'를 그려내기 위해 선택된 작가의 의도적 전략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버틀러의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²⁾을 세 가지 측면에서 원용하고자 한다. 먼저, 버틀러는 주체가

2)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함.

자율적으로 행동과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발언의 효과’로 행위 주체가 구성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수행성’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수행성 개념은 행위 주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행위 주체는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규범과 관습을 인용하고 반복해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 이때 규범이란 ‘의례’에 의해 생겨나는 생산물로서, 법, 관습과 문화, 언어, 금지, 금기 등을 모두 포괄한다. 버틀러는 언어의 수행성을 발화효과행위(perlocutionary act)로 보았다. 가령, ‘혼인을 선언하노라’는 진술은 발언자의 힘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사용되어 온 혼인에 대한 언어적 관습을 발언자가 인용했기 때문에 그 발화가 행위를 동반하게 되고, 수행문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규범과 관습의 인용과 반복을 수행함으로써 행위 주체가 구성되는 것이다. 이 수행성의 개념에서 『유년의 딸』에 접근할 경우, 오빠의 발화 행위가 어떤 사회 규범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어떤 주체로 구성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동시에 ‘나’가 거부하는 규범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 호명(interpellation)하는 주체와 호명 당하는 주체의 개념이다. 호명하는 주체는 규범을 수행하는 권력을 지닌 주체라 할 수 있다. 한편 호명 당하는 주체는 호명하는 주체의 반복되는 호명에 의해 규범과 관습에 복종하기를 강요당하는 주체이다. 이를 통해, 『유년의 딸』에서 오빠가 ‘호명하는 주체’에서 ‘호명 당하는 주체’로 변화하는 과정과 그 이유,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체의 저항성이다. 버틀러는 수행성 개념에 의해 주

J. Bultler, 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 J. Bultler, 김윤상 역,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인간사랑, 2003.; J. Bultler, 유민석 역, 『혐오발언』, 알렙, 2016.

체가 구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주체의 저항성을 논한다. 곧 주체는 규범을 수행하면서, 또한 규범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규범과 담론의 전복 지점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버틀러는 전유하기, 전복하기, 재맥락화하기 등을 저항하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 이를 통해, 『유년의 뜰』에서 ‘나’가 당대 규범의 담론을 전복하고 저항하는 지점과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장과 3장에서는 오빠와 관련된 행위 주체의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학교 교육과 미국 유학을 통한 출세라는 규범을 수행함으로써 주체가 되고자 하는 오빠의 욕망과 그 좌절을, 3장에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질서의 규범을 수행함으로써 주체가 되고자 하는 오빠의 욕망과 그 좌절을 다룰 것이다. 4장에서는 ‘나의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행위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말’의 거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배적인 규범과 관습에 저항하거나 이를 전복시키는 ‘틈’은 어떠한 전략에 의해 마련되고 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³⁾

2. 미국 중심주의와 출세지향주의를 수행하는 주체

이 작품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가족, 특히 오빠의 변화가 중심 서사를 이루고 있다. 수행성 개념에 입각해 오빠의 변화에 접근할 때,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오빠의 발화 행위에 나타난 주체화의 과정이다. 곧 오빠의 발화 행위는 오빠가 살아가는 당대 사회현실의 규범과 관습을 발화 행위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상징계의 주체가 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오빠의 주체화 욕망은 전쟁

3) 논의를 위한 주된 텍스트로 1998년에 문학과지성사에서 출판된 오정희, 『유년의 뜰』을 삼고자 한다.

으로 인해 변화하면서 좌절된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것이, 이 작품이 오빠가 영어 책을 읽으면서 외우는 ‘왓 아 유 두잉?’을 첫 문장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작품 전체에 걸쳐 오빠의 영어 외우기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빠가 외우는 영어 문장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종류가 등장한다.

- ① 왓 아 유 두잉?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임 리딩 어 북, 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왓즈 유어 프렌드 두잉? 당신의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⁴⁾
- ② 아임 낫 라이어. 아임 어니스트 보이.⁵⁾

①은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문장이다. ②는 미국 문관인 해리스 씨의 집에서 식모 노릇을 하는 서분이 가르쳐 준 일상 회화에 해당하는 문장이다. ①의 경우, 오빠는 ‘중학교 2학년에서 학교를 중단’했다는 사실과 함께 ‘고등학교 입학 자격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해 준다. 오빠는 피난지에서도 학교에 진학하려는 꿈을 갖고 있으며, 어머니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어머니가 밥집에 나가기 전까지 영어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빠의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 읽기가 세 해째 ‘해 저물 때까지’ 반복되는 행위이며, ‘오빠가 방에 없을 때조차 그 소리는 지루하게 되풀이해 울’린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 반복적 행위를 강조한다. ②의 경우, 오빠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나무집 둘째딸인 서분처럼 미국인 집의 고용인이 되는 것이 학교에 진학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일임을 알게 된다. 오빠는 서분으로부터 ‘순 한국식 발음’이라고 웃음거리가 된 교과서의 문장(①) 대신 이번에는 미

4) 오정희, 『유년의 뜰』, 『유년의 뜰』, 문학과지성사, 1998, 9면.

5) 위의 책, 55면.

국민 집의 고용인으로 익혀야 할 일상 회화(②)를 서분을 통해 배워 외우게 된다.

①과 ②는 동일한 영어 문장 외우기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①에서 ②로의 변화야말로 오빠의 주체화되기 욕망의 변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한 변화는 오빠의 발화 행위를 규정하는 두 가지 당대 사회 규범, 곧 미국 문화중심주의와 출세주의, 그리고 가부장제 질서라는 사회 규범에서 비롯된다. 이 장에서는 먼저 미국 문화중심주의와 출세주의라는 사회 규범과 관련된 오빠의 주체화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 가부장제 질서와 관련된 오빠의 주체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문화중심주의와 출세주의와 관련하여 ①에 나타난 오빠의 주체화 욕망을 살펴보자. 이를 위해 오빠의 영어 문장 외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주목해야 한다.

어쩌면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꼭 미국 사람 지껄이듯 하는군. (중략)

사람들 말대로 오빠는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었다.⁶⁾

오빠의 영어 외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오빠의 발화 행위에 내재된 당대 사회의 규범과 관습을 읽을 수 있다. 사람들은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지껄일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곧 ‘학교 교육’과 ‘미국’과 ‘영어’가 ‘성공’ 혹은 출세의 공식처럼 여겨지는 당대 사회의 통념이 오빠로 하여금 열심히 영어책의 문장을 외우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과서로 표상되는 학교 교육이 출세와 성공을 보장해준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교육 중에서도 영어 교육을 통해 출세할 수 있다는 믿음이

6) 위의 책, 12-13면.

당대 사회 규범임을 알 수 있다. 영어만 잘한다면 성공할 것이라는 미국 중심의 서구지향성과 출세지향주의가 일종의 관습적 규범처럼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입학 자격 시험 준비를 한다는 오빠는 저물 때까지 창가에 앉아서 영어책을 읽었다. 아예 책을 덮어놓고 1과부터 외우기도 했다. 우리의 좁은 방은 언제나 오빠의 책 읽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끝없이 반복되는 단조롭고 긴 소절의 노래였다. 오빠가 방에 없을 때조차 그 소리는 지루하게 되풀이해 울리고 있었다. 핫 아 유 두잉? 핫즈 유어 프렌드 두잉?

중학교 2학년에서 학교를 중단한 오빠가 읽는 것은 피난집에 소중히 감춰온 중2 교과서였다.⁷⁾

전쟁으로 인해 피난을 온 상황에서도 오빠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특히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구사하고자 욕망하면서 이를 반복적인 발화 행위로 수행함으로써 상징계의 주체가 되고자 한다.⁸⁾ 그러나 그러한 오빠의 욕망은 좌절된다.

(i) 지난겨우내 봄내, 앓는 아이를 업고 개울 아래로 지친 그림자를 떨어뜨리며 피난민 가족들은 물처럼 흘러들어왔다. 오늘 어느 집인가 헛간을 치울 것이다. 우리도 지난해 그들처럼 초라하게 이곳으로 들어왔던 것이다.⁹⁾

(ii) 어머니가 아버지의 행방을 수소문해서 여섯 차륜가 일

7) 위의 책, 12면.

8) 버틀러는 주체를 미리 존재하는 형이상학적 여행가로 전제하고 출발하지 않는다. 대신 그것이 수행하는 행위자들에 의해 담론 안에서 구성되는 과정-중의-주체라고 설명한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오빠는 당대의 규범적 담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중의-주체로 볼 수 있다. S. Salih, 김정경 옮김,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앨피, 2015, 86면.

9) 오정희, 앞의 책, 16면.

곱 차렷가 헛행보를 한 뒤 읍내 밥집에서 드난을 살게 되면서 부터 우리들을 단속하는 일은 오빠가 맡았다.¹⁰⁾

(iii) 읍에 야간 중학교가 생기자 어머니는 말했다. 온 식구가 한뼉잠을 자는 한이 있어도 학교를 보내마.

그런데도 오빠는 세 해째 같은 책을 읽고 있는 것이다. 보풀이 일어 눅눅하고 두껍게 부푼 책에 오빠는 딱딱한 마분지를 덧대어 결장을 만들었다.¹¹⁾

(iv) 벽에 버티어놓은 거울에, 등지고 앉은 오빠의 몸이 고집스럽게 담겨 있었다. 뽀뽀나온 새치를 손가락 사이에 들고 잠시 들여다보던 어머니가 햇빛을 피하는 시늉으로 눈살을 찌푸리며 거울을 옮겨놓고 화장을 계속했다. 나무궤 위에 쌓아놓은 우리들의 때물은 이부자리가 거울면에 들어찼다. 오빠의 모습은 사라졌다. 대신 거친 손짓으로 책장을 넘기는 바람에 낡고 눅눅해진 종이가 힘들게 찢겨지는 소리가 났다. 오빠의, 긴장으로 경직된 등이 제풀에 움찔했다.

어머니는 등뒤의 작은 시위-그러나 오빠 나름대로는 필사적인-에 아랑곳하지 않고 분침으로 탁탁 얼굴을 두들기고 가늘고 둥글게 눈썹을 그렸다.¹²⁾

전쟁으로 인해 피난을 온 극한 상황(i)에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어머니는 읍내 밥집 드난살이를 하면서 궁핍하게 살아간다(ii). 어머니는 피난 와서 처음에는 ‘온식구가 한뼉잠을 자는 한이 있어도’ 오빠를 학교에 보내겠다고 했지만 아버지 대신 가족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게 된 상황에서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iii) 게다가 어머니는 읍내 정육점 사내와 정분이 나면서 오빠를 학교에 보내는 일에 외면한다. 오빠는 그런 어머니에게 시위를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이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iv).

이로 인해 결국 공부를 해 출세하고자 하는 오빠의 욕망은 좌절

10) 위의 책, 19면.

11) 위의 책, 13면.

12) 위의 책, 10면.

된다. 좌절된 욕망으로 인해 절망감에 빠진 오빠에게 새로운 주체
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벌어지는 데 그것이 서분과의 만남이
다.

(i) 순 한국식 발음이다, 애.

그녀는 깔깔 웃었다. (중략) 내가 있는 집, 해리슨 씨 말야.
너 같은 애 여럿 미국 보냈어.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내가 말
해줄게. 그 사람들, 너같이 불우하고 의지 강한 애들을 참 좋아
해. 어떡허든 도와주려고 애쓴단다. (중략)

처음부터 신임을 얻기는 어려워. 일단은 다 도둑놈으로 보
려 하거든. 처음엔 시험을 한단다. 우선 좋은 날씨군요/행복한
아침입니다/나는 절대로 흠치지 않았습시다/나는 거짓말쟁이
가 아닙니다라라는 말만 할 수 있으면 돼.¹³⁾

(ii) 해리슨 씨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도둑질과 거짓말이라
고 했다. 서분이는 근 보름께나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동안 오
빠는 그녀에게서, 자신을 고용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해리슨
씨의 성품·취미·가족 상황·식성 따위를 낱낱이 익혔다. 우
리는 미국 문관인, 좀 비대한 중년의 백인 사내가 아침에는 홍
차를 마시고 피가 흐를 듯 말 듯 슬쩍 익힌 비프 스테이크를
즐긴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오빠는 해리슨 일가에 관한 한 무엇이든 서분이의 말에 열
심히 귀를 기울였다. 해리슨 씨가 반드시 자기를 고용하리라는
자신은 없었지만 그녀의 큰소리대로 불원간 미국인 집에 가게
될 것이고 모든 미국인은 친절할 해리슨 씨에 다름아니었으므
로.

우리 역시 곧 오빠가 미국에 가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리
고 성공해서 돌아올 것이다.¹⁴⁾

어머니가 안 돌아오는 밤이 잦아지고, ‘늙은 갈보’라는 소문까지

13) 위의 책, 53-54면.

14) 위의 책, 54면.

돌자 오빠는 어머니에게 소문을 전하며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간다. 어머니와 오빠 사이의 ‘긴장이 위태롭게 팽팽해져’ 가는 가운데 가을 무렵 도회지에 나가 있던 감나무집의 작은 딸 서분이 휴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온다. 서분은 첫날부터 스스럼없이 오빠에게 영어 공부를 하느냐고 물으면서, 오빠의 영어 발음을 듣고 ‘순 한국식 발음’이라고 비웃는다(i).

그러면서 서분은 미국인이 ‘불우하고 의지 강한 아이들’의 후견인 노릇을 하면서 미국 유학을 보내준다고 말한다(ii). 그 순간 전쟁이란 상황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오빠의 강렬한 욕망은 미국인 집의 고용인이 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오빠는 그러한 욕망을 절대화시켜 자신의 성공을 보장해 줄 서분을 무조건 믿고 따른다(ii). 그 결과 오빠는 미국인들과의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문장인 “아임 낫 라이어”라는 문장을 반복해서 외우기 시작한다. 이러한 오빠의 욕망은 미국만이 절대적인 성공을 보장해준다는 당대 사회 규범을 수행하는 것에 해당한다.

영어 교과서를 읽고 학교에 진학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오빠가 서분에 의해 ‘불우하고 의지 강한 애들’로 재규정되면서 오빠는 미국인 집의 고용인이 되는 것을 자신의 성공으로 대체한다. 서분에 의해 대리된 미국인의 생활 방식과 관습과 취향 등이 오빠가 지향해야 할 가치 덕목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감나무집이 집을 팔고 도회지로 이사를 가면서 서분과의 연락은 단절된다. 그리고 가족은 방앗간집으로 이사를 가고, 어머니는 정육점 사내와의 정분이 소문나 정육점 사내의 부인에게 머리카락을 잡히는 수모를 당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오빠는 미국 유학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읍내 정육점 사내와 정분이 났다는 소문은 동네에

짜아하게 퍼졌다. 그 사내의 마누라에게 머리채를 잡혀 읍내를 몇 바퀴 돌았다던 날 밤 할머니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다그쳤다.

새끼들 다 팽개치고 달아날 셈이나. 이젠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오빠는 우리를 모아놓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이제 헤어지는 거다. 너희들은 고아원에 가 있어라. 내가 성공해서 데리러 오겠다. 구두도 닦고 신문도 팔겠다. 도둑질도 하겠다. 미국엘 가서 어떻게든 성공하겠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저녁마다 읍내 밥집에 나가고 오빠는 봄내 여름내 저잣거리에서 살다시피 했다.¹⁵⁾

정분이 난 어머니를 대신해 오빠는 자신이 도둑질을 해서라도, 구두닦이, 신문팔이를 해서라도 미국에 가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큰소리치지만, 오빠의 그런 욕망은 실현되지 못한다. 더 이상 영어책을 읽지 않는 오빠의 모습은 욕망의 실현 불가능성에 대한 오빠 스스로의 자인인 셈이다.

오빠는 전쟁 중 피난지라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학교 교육을 통해 성공하고자하는 욕망을 갖지만 이 욕망은 좌절된다. 오빠는 좌절된 욕망 대신 미국인 해리슨씨의 도움을 받아 미국 유학을 가서 성공하고자 하는 또다른 욕망을 갖게 되지만 이 욕망 또한 좌절된다. 오빠의 이러한 두 가지 욕망은 당대 사회 규범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성공한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그런 오빠의 욕망은 전쟁과 아버지의 부재, 그로 인한 어머니의 정분 등이 결합되어 좌절된다. 이후 오빠는 자신이 ‘경멸’해마지 않았던 ‘차부의 조수들’처럼 휘파람을 불며 계집애들을 희롱하는 비루한 존재로 전락한다. 그럼으로써 오빠는 전쟁이 가져온 당대의 파행적인 사회 상황, 곧 교육과 유학을 통한 출세를 불가능하게 하는 암울한 사회 상

15) 위의 책, 61면.

황에 희생양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오빠의 변화를 통해 이 작품은 전쟁이 야기한 비극적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3. 가부장제 질서를 수행하는 폭력적인 주체

오빠의 두 가지 영어 문장은 오빠의 주체화 욕망이 학교 교육을 통한 출세에서 미국 유학을 통한 출세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은 영어 문장 외우기라는 측면을 넘어서, 그 발화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호명하는 주체와 호명 당하는 주체라는 측면을 담고 있다. ‘하는’과 ‘당하는’이라는 이러한 주체의 지위 변화는 이 작품에서 가부장제 질서라는 또다른 사회 규범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곧 오빠는 가부장제 권위를 수행하는 주체가 되고자 하지만 그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를 두 가지 영어 문장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영어 문장에 다시 주목하자.

- ① 핫 아 유 두잉?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임 리딩 어 북, 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핫즈 유어 프렌드 두잉? 당신의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② 아임 낫 라이어. 아임 어니스트 보이.

①은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를 묻는 일종의 질문이다. 이에 대한 답은 ‘나는 ~을 ~한다’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여기에서 방점이 놓이는 부분은 ‘동사’, 곧 ‘~한다’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로 인해 독자는 이 질문에 이어 서술되는 장면들에서 각 인물이 무엇을 ‘하는가’에 집중하게 된다. 말하자면 ①은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된 질문인 것이다.

반면, ②는 누군가의 질문, 가령, ‘당신은 거짓말쟁이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곧 ‘당신은 X인가?’를 묻는 질문에 ‘나는 X가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X’는 질문자의 판단 혹은 추측에 근거한 ‘명사’이다. ‘X’라는 부류는 어떤 부정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령, ‘피난민’이 ‘거지’, ‘도둑놈’으로 여겨지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말하자면 질문자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 묻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기 이전에 먼저 질문을 받는 사람을 ‘X’로 단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는 X가 아니다.’라는 대답은 질문하는 주체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질문자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일종의 의미 없는 항변에 지나지 않는다.

①에서 오빠는 질문을 하는 ‘호명하는 주체’ 자리에 놓이지만 ②에서 오빠는 질문을 받는 ‘호명 당하는 주체’의 자리에 놓인다. 이와 같은 오빠의 변화된 상황은 가족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결부되면서 각 상황에 해당하는 ‘말’이 갖는 특성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의미화한다.

우선 ①의 경우 ‘행위자로서의 주체’를 확인시킨다. 이 질문은 행위자로서의 ‘당신’의 행동과 관련된다. 어머니, 언니, 할머니, ‘나’, 그리고 전쟁 중인 아버지까지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주체로 호명 당한다. 이 문장에 뒤이어 ‘해 질 무렵’이라는 동일한 시간대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각 인물들의 행위가 서술된다. 오빠는 영어 책을 읽고, 어머니는 화장을 하고, 언니는 동생을 보고, 할머니는 저녁을 짓고, ‘나’는 할머니 심부름을 한다. 이 장면은 아버지가 부재하는 한 가족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가부장제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각 인물의 지위와 역할에 걸맞은 행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선명하게 제시한다.

피난지에 와서 오빠는 부재하는 아버지 대신, 그리고 읍내 밥집에

서 드난을 살면서 돈을 버는 어머니 대신 가족을 ‘단속하는 일’을 맡게 된다. 책만 읽던 오빠는 가장의 지위에 걸맞은 발화 행위를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정주민들로부터 인용하고 반복한다.

먼저, 어머니의 발화에 대한 인용이다. 이 경우 오빠는 가부장제 질서의 말과 행동을 반복적으로 인용함으로써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축적시킨다.

(i) 남의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손가락질도 하지 마라. 얼마나 음흉한 사람들인지…… 너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야. 난리통에 바깥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도둑놈이나 거지로 생각한단니까. 손버릇 사납다고 소문나면 가뜩이나 애 많다고 싫어하는 판에 외양간도 못 얻어 든다.¹⁶⁾

(ii) 떨어진 감에 손가락만 대봐라, 손목을 잘라 버리겠다.¹⁷⁾

(iii) 밤에 쏘다니지 말아, 가만 안 둘 테야.¹⁸⁾

(i)에서 보듯, 어머니는 감나무집에 이사 왔을 때 피난민으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우리들을 모아 놓고’ ‘단단히 타이른다. 이때 어머니의 발화에서 주목할 것은 ‘하지 마라’와 ‘소문’이다.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잘 알고 있다. ‘손버릇 사납다’고 여겨질 만한 것, 곧 ‘도둑놈’이나 ‘거지’와 같은 것을 싫어하고, 애가 많은 가족을 싫어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그 마을의 관습이나 규범, 금기의 일종이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범주로 구성된다. 어머니의 발화는 바로 그러한 정주민들의 관습적 규범을 ‘인용’한 것이다. (ii)에서 보듯, 오빠는 그러한 어머니의 ‘발화’를 반복적으로 인용함으로써 가족을 단속하고자 한다.

오빠가 단속하는 것은 비단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만은 아니다.

16) 위의 책, 19면.

17) 위의 책, 19면.

18) 위의 책, 27면.

오빠는 언니의 밤 외출을 단속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술 취해 돌아 오거나 외박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감시한다. 이러한 오빠의 행위는 감나무집 부네에 대한 ‘소문’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다.

(ii) 부네가 아이를 가진 게야, 아마 지금쯤 꽤 배가 불렀을 걸, 어찌 첫눈에도 홀몸이 아닌 것 같더라니. 남몰래 몸뚱 후 용케도 아들이면 자식 없는 집에 업둥이로 들여보내고 멀쩡히 처녀 행세를 시키려는 속셈이지 뭐야.

그리고 더욱 여러 날이 지났을 때 사람들은 다시 말했다.

바람이 난 게 아니라 몹쓸 병에 걸린 게야, 소문날까 무서워 쉬쉬하는 거지, 문둥이 있다는 소문만 나봐, 여기서 배겨낼 도리가 있겠어?

그게 아니라…… 혹시 미친 게 아닐까?¹⁹⁾

(iii) 사람들 말대로 부네는 몹쓸 병을 앓고 있는 걸까, 미쳐서 짐승처럼 재갈 물리고 손발 묶여 갇혀 있는 걸까.²⁰⁾ (밑줄: 인용자)

부네가 바람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부네의 아버지 외눈박이 목수는 부네를 찾아 집으로 끌고 들어와 방에 가둬버린다. 갇힌 부네를 두고 마을에선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문둥병에 걸렸다, 미쳤다는 소문이 돈다. 무엇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채로 부네는 경멸의 대상에서 혐오의 대상으로, 그리고 비정상적인 존재로 사람들에게서 잊혀 진다. 소문은 부네를 ‘아이를 가진 여자’, ‘문둥이’, ‘미친년’으로 만들면서 부네를 가부장제 질서 밖으로 배제되어야 할 비정상적인 존재로 만든다. 이는 가부장제 질서의 규범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처녀는 아이를 가져선 안 된다, 자식을 낳아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 미친 사

19) 위의 책, 21면.

20) 위의 책, 22면.

람은 짐승처럼 재갈 물리고 손발 묶여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들이 그것이다. 이처럼 어머니를 위시한 사람들은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을 ‘정상’으로 여기고 그러한 인식을 재생산한다.

(i) 애들이 많아도 말썽을 안 부리는군요.

나름대로 정한 시험 기간을 끝낸 안집 여자가 만족스럽게 말하자 어머니는 공손하나 비웃는 듯한 웃음을 띠며 대답했다. 애들 버릇은 애초에 맵게 들여야 해요. 세 살 버릇 여든 살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²¹⁾

(ii) 옛날 버릇이 남아서…… 기생이었다.

할머니의 꽃땀기를 가리키며 어머니는 다분히 경멸조로 말했다. (중략)

옛날 버릇이 남아서…… 청승이지 뭐냐. 잠자리 피실 영감님도 없는 터에……. (중략)

후에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할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하고(어머니는 첩에게 빨렸다는 말을 썼다) 돌아간 후, 화류계 여자들이 흔히 그렇듯 자식을 낳지 못한 할머니는 쪽 혼자 살고 있었다고 했다.²²⁾(밑줄, 강조: 인용자)

어머니는 피난민으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아이들을 단속한다. 그러면서 안집 여자의 딸 부네의 소문을 염두에 두고 자식들 버릇을 애초에 ‘맵게’ 들이지 못한 안집 여자를 ‘비웃는다’(i). 또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소실’이었던 할머니를 두고 ‘기생’, ‘첩’이라고 말한다(ii). 이처럼 어머니는 가부장제 질서를 위협하는 ‘아이를 가진 처녀’, ‘기생’, ‘첩’ 등을 경멸의 대상으로 명명한다. 이러한 명명은 ‘흔히 그렇듯’이란 표현을 동반하면서, 혹은 속담을 인용하면서 경멸과 비하를 내포한 발화 효과를 갖는다.

오빠는 마을 사람들의 ‘소문’을 경계하고 ‘하지 마라’를 규율화하는

21) 위의 책, 19면.

22) 위의 책, 36-38면.

어머니의 태도를 받아들이면서 여성의 일탈을 금지하는 가부장제의 질서를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발화한다.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일탈 행위를 평가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오빠는 호명하는 주체로서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를 질문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 권한을 통해 오빠는 가부장제 질서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주체가 되고자 한다.

그와 동시에 어머니, 언니, 할머니, ‘나’는 호명 당하는 주체가 된다. 호명하는 주체로서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오빠의 질문은 ‘당신은 금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는가?’라는 ‘금지’와 결합된다. 이처럼 ①은 오빠가 외우는 교과서의 영어 문장 그 자체로만 환기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더해 인물들의 행위에서 금지 위반이 자행되고 있는가를 인물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다시 ‘소문’과 관련하여 ‘(금지 위반을 한) 당신은 X인가?’(②의 대답을 유도하는 은폐된 질문)라는 암시적 내용으로 전환되면서 호명 당하는 주체를 소문 속의 ‘X’로 낙인찍는다.

가령,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오빠의 질문에 의해 호명 당하는 어머니, 언니, 할머니, ‘나’를 보자. 처음에 어머니는 화장을 하고, 언니는 동생을 보고, 할머니는 저녁을 준비하고, ‘나’는 할머니를 돕는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자 어머니는 밥집에 나가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오거나 외박을 하고, 언니는 여름밤 희롱하는 사내들이 가득한 저잣거리에서 나가 밤이슬을 맞고 돌아온다. ‘나’는 주인집 감나무에서 떨어진 풋감을 몰래 주어먹거나, 어머니 뭇의 밥이나 동생 뭇의 고구마를 훔쳐 먹고,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빼낸다. 할머니는 밭에 어정거리는 닭을 입자 없는 닭이라며 빨래 함지에 잡아 온다. 이러한 행위가 여러 번에 걸쳐 반복되는 것으로 서술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 인물들이 금기를 위반하는 행위에 점차 길들여지게 되었음을 강조한다. 오빠가 인용하고 발화함으로써 ‘금지’가 된

‘~하지 마라’를 위반한 결과 어머니는 ‘늙은 갈보’로, 언니는 ‘바람난 처녀’로, 할머니와 ‘나’는 ‘도둑놈’으로 낙인찍힐 상황에 처해진다.

오빠는 언니의 밤 외출을 단속하면서 ‘사천왕처럼 문에 버티어 서서 냄새라도 맡을 듯 코를 벌름이며’ ‘또 나갔었지?’하고 캐묻는다. 언니는 ‘아냐, 내가 언제 어쨌다고 그래’하면서 오빠의 추측을 부인한다. 이 상황에서 오빠는 질문하는 자, 언니는 대답하는 자 혹은 항변하는 자의 자리에 놓인다.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로의 상황에 놓인다. 오빠는 읍내 밥집에서 드난을 살던 어머니가 술 취해 돌아오고, 외박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사람들이 ‘늙은 갈보’라고 부른다는 말을 전한다.

남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중략)
갈보래요, 늙은 갈보.²³⁾(밑줄: 인용자)

오빠가 ‘남들이’ 어머니를 ‘늙은 갈보’라고 부른다는 소문을 전하자, 어머니는 ‘눈가가 순간 확 붉어졌’지만 태연한 척 ‘실컷 떠들라지’라는 말로 대응하면서도 ‘입술을 깨’문다. 소문을 빌어 어머니를 ‘늙은 갈보’로 명명하는 오빠의 이 발화 행위를 통해서 어머니는 ‘늙은 갈보’의 속성을 가진 인물로 단정된다. 어머니는 ‘나는 X가 아니다’(실컷 떠들라지)라고 항변하지만, 이미 어머니는 소문 속에서 경멸받는 존재 ‘X’로 전락해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X’라는 의심이 사람들의 발화 행위, 곧 ‘소문’, ‘낙인’에 의해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이다. 이때 소문은 기존의 가부장제 질서의 논리를 재생산한 것으로, 가부장제 질서를 흔드는 일탈 행위의 금지를 통해 가부장제 규율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이는 행동의 단속이나 경계를 넘어선 일종의 형벌에 속한다.

23) 위의 책, 51-52면.

다음으로, 오빠는 정주민 가정의 발화 행위를 인용, 반복한다. 오빠는 마을 사람들처럼 가족을 ‘금지-형벌’로 단속한다. 오빠의 ‘금지-형벌’의 질서는 정주민들의 삶의 질서, 곧 감나무집의 외눈박이 목수나 언니의 오학년 담임선생이기도 한 순자 아버지의 질서를 내면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i) 사람들은 그녀, 부네의 아비, 그 늙고 말없는 외눈박이 목수가 어떻게 그의 바람난 딸을 벌건 대낮에 읍내 차부에서 부터 끌고 와 어떻게 단숨에 머리칼을 불밤송이처럼 잘라 댕 바람에 골방에 처넣고, 마치 그럴 때를 위해 준비해놓은 듯 쇠 불알통 같은 자물쇠를 철커덕 물렸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 기했다. 또 그녀가 들창을 열고 야반 도주를 하려 하자 딸가벗 기고 들창에 아예 굵은 대못을 쳐버렸다고,²⁴⁾

(ii) 순자 엄마가 바람이 나서 도망갔대. 그래서 순자는 밥하고 빨래하고 동생들 보느라고 학교도 빠져. 선생님은 술만 마시면 애들을 때리고, 녀들이 불쌍하다, 다 함께 죽어버리자, 하면서 우신대.²⁵⁾

외눈박이 목수는 바람난 딸 ‘부네’가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들려 오자 ‘부네’를 찾아 집으로 끌고 와 머리를 깎아 방에 가두고 자물쇠를 채운다. 부네가 들창으로 야반도주를 하려 하자 외눈박이 목수는 부네를 발가벗기고 들창에 대못을 쳐 완전히 감금해버린다(i). 순자의 아버지는 아내가 바람이 나서 아이들 다섯을 버리고 도망가자 순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살림을 시키며 술만 마시면 같이 죽자면서 아이들을 때리는 인물이다(ii). 바람이 난 딸, 바람이 난 아내로 인해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상황을 두 가정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은 소문을 통해 그 이야기를 읊기고, 그러한 상황을 경

24) 위의 책, 20면.

25) 위의 책, 15면.

계함으로써 가부장제 질서를 공고히 한다. 그리고 가장은 가족 내의 여자의 행실을 '감금', '매질'로 단속함으로써 가정의 안녕을 도모하고자 한다. 오빠는 외눈박이 목수나 순자의 아버지의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인용함으로써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폭력적으로 행사한다.

(i)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밥집의 건너편, 하루살이떼가 빛을 따라 바람개비처럼 어지러이 돌고 있는 전봇대에 비스듬히 기댄 자세로 서서 이 모든 거리의 풍경을 경멸하듯 바라보며 오빠는 봉대 감은 손에 하모니카를 들고 다만 외롭게 혀를 떨며 하모니카를 불었다.²⁶⁾

(ii)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 밤이면 오빠는 언니를 때렸고 할머니는 말릴 염도 없이 동생을 업고 나가 개울가를 서성였다.²⁷⁾

딸을 감금한 외눈박이 목수처럼 오빠는 언니에게 밤 외출을 금지한다. 그리고 밤이면 어머니가 일하는 밥집 앞에 서서 어머니를 감시한다(i). 오빠는 어머니가 외박하는 날이면 어머니 대신 언니를 매질한다(ii). 어머니 대신 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금기 위반에 대한 형벌을 언니에게 대신 지우는 것이다. 도망간 어머니 대신 딸에게 매질하는 순자의 아버지에게서도 금기 위반에 대한 형벌을 딸에게 대신 지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가족 중의 여성의 행동 거지를 감시하고, 금기를 위반하는 여성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행태는 피난지 정주민들의 삶에서 쉽게 목격된다.

오빠는 가부장제 삶의 질서를 내면화한 어머니와 정주민들의 금기와 소문, 낙인 등의 관습과 규범을 반복적 언행으로 실천함으로써

26) 위의 책, 26면.

27) 위의 책, 27면.

호명하는 주체이자, 금기 위반을 판단하고, 형벌을 부과하고, 집행하는 주체로서 가장의 권위를 축적시킨다.

하지만, 열여섯 살이라는 ‘어린 몸’으로 ‘욕망’을 절제하기는 어렵다. 그런 불균형을 감추기 위해 오빠는 더욱 폭력적으로 가족을 단속한다.

(i) 오빠의 매질은 무서웠다. 오빠는 작은 폭군이였다. 아버지가 떠난 이래 부쩍부쩍 자라는 오빠의 몸이 어느결엔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웠다. 어머니가 읍내 밥집에 나가게 되면서부터, 그리고 수상쩍은 외박이 잦아지자 오빠는 암암리에 아버지의 위치를 수락하였음을, 공공연히 자행되는 매질로 나타냈다.

오빠는 자신이 가장임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어 언제나 침울하고 긴장으로 부자연스럽게 굳어 있었다. 그 긴장으로 억눌려져 자라지 못하는 욕망, 자라지 못하는 슬픔, 분노 따위는 엉뚱한 잔인성이나 폭력의 형태로 나타났다.

때문에 한없이 크고 당당해 보이는 체구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때로 내게 어린애처럼 연약해 보이고 불투명하고 애매해 보였다. 우리를 때릴 때조차 어쩔 줄 모르는 듯 보이기도 했다. 오빠 자신도 이 사실을 깨닫는 듯 걸핏하면 목덜미까지 시뻘겋게 붉혔다.²⁸⁾

(ii) 오빠는 처음엔 닭을 입에 대지도 않았다. 자기 몫의 국을 보아란 듯 뜨물통에 쏟아 우리를 경악케 했다. 그러나 한참 자랄 나이의 왕성한 식욕을 오랫동안 외면할 수는 없었다.²⁹⁾

오빠의 몸은 ‘한없이 크고 당당해 보이는 체구’를 갖고 있으나, 오빠가 감당해야 할 가장의 역할은 열여섯 살의 몸과 정신이 감당하기 버거운 무게로 얹혀 있다. 오빠의 욕망과 감정, 정서 등은 가장의

28) 위의 책, 27-28면.

29) 위의 책, 46면.

무게에 짓눌리고 억압되어 있어 엉뚱한 잔인성이나 폭력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나’에게 오빠가 ‘연약해 보이고 불투명하고 애매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무서운 까닭은 그 때문이다(i). 할머니가 입자 없는 닭을 잡아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훔쳐 온 것이나 다름없는 닭을 오빠는 처음에는 거부한다. 스스로 부과한 금기를 지키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오빠는 ‘한참 자랄 나이의 왕성한 식욕’을 외면하지 못한다(ii). 따라서 오빠의 강력한 ‘훈도’로서 동생들에게 자행되는 매질, 곧 ‘금기-형벌’은 열여섯 나이의 몸이 갖는 유약성을 감추고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인용’된다.

다음으로 ②의 ‘아임 낫 라이어. 아임 어니스트 보이’를 보자. 가부장제 질서를 수행하고 호명하는 주체로서의 오빠의 권위는 ②의 발화와 함께 허물어진다. ②에서 오빠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혹은 자신의 태도를 규정하는 서분의 발화에 의해서 호명 당하는 주체, 대답해야 하는 자, 항변해야 하는 자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 앞서 질문자로서의 지위가 역전되는 것이다. 또한 오빠는 ‘작은 가장’으로서 스스로 규율과 금기를 정하고 판단하고 집행하던 상황에서, 서분에 의해 주어진 행동과 금지와 발언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 처지가 변화하게 된다.

오빠는 어머니를 ‘늙은 갈보’로 판단하는 주체의 자리에 있으나, 그 지위는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서분’과의 관계(②)에서 오빠는 주체의 지위에서 끌어내려져 대답하는 자, 항변하는 자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때 질문하고 의심하는 주체의 자리에 놓이는 것은 ‘서분’이다. 부네의 동생인 서분은 도회지에 있는, 미국 문관 해리슨 씨 집의 ‘식모’이지만 부모를 부양할 정도로 돈을 버는 까닭에 가족들의 눈에는 성공한 인물로 비춰진다. 서분은 ‘나’의 가족에게 독한 향수, 껌, 초콜릿 등 미국인들의 물건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식모를 하지만 기계로 청소하고, 기계로 빨래하는 까닭에 손도

‘분걸’ 같아서 할머니의 부러움을 산다. 집에서도 꼭 끼는 스커트에
 흔히 살이 비치는 양말을 신고 굽 높은 구두를 신는 서분은 ‘우리들’
 눈에 밤마다 엉덩이를 흔들고 다니는 읍내 처녀들과도 비교되지 않
 을 정도로 멋쟁이로 여겨진다. 나이 찬 처녀들이라면 사내들로부터
 떨어져 끼리끼리 무리지어 다닐 뿐이지만, 서분은 허물없이 오빠를
 대한다. 밤이 되면 읍내로 나가 어머니를 감시하던 오빠는 그것도
 그만 두고 서분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 ‘밤 깊어 마른풀내를 풍기
 며 소리없이 들어’온다.

그러한 서분은 미국 문관인 해리슨 씨를 대리하면서 새로운 규범
 을 오빠에게 알려준다. 그 규범은 미국인의 문화, 생활방식, 관습,
 취향에 맞춘 것이다. 오빠는 어머니와 정주민의 행위와 발화를 반
 복, 인용하면서 가부장제의 ‘금기-형벌’의 말을 통해 가족들, 특히
 여성들에게 규율을 폭력적으로 부과해왔다. 그러나 지금 오빠는 서
 분이라는 여성에게 호명 당하는 주체로 전도된다. 전통적인 가부장
 제 질서에 희생된 언니 부네와 달리, 미국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규범
 과 관습을 발화하고 행동하는 서분에게 오빠는 길들여진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질서(①의 발화)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적 질서(②의 발화)에 의해 대체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빠의 변화된 두 가지 모습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오빠의 영어 책 읽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꼭 미국 사람 지껄이듯 하는군”이란 말을 들
 었던 오빠의 영어 발음은 서분에 의해 “순 한국식 발음이다, 애”하는
 비웃음거리로 전락한다. 한국 사람이 오빠가 영어로 말하는 것을 듣
 는 것이 전자라면, 후자는 미국 사람들이 오빠의 영어를 듣는 것에
 해당한다. 전자에서 오빠는 듣는 사람들과 동일한 주체의 지위에 놓
 여 있지만, 후자에서 오빠는 말하는 주체의 자율성을 잃고 평가받는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변화는 오빠가 일종의 서양문화의 피식

민지, 곧 수동적 타자로 변해가는 모습을 암시한다.

다음, 가족 내에서 오빠의 위치가 전도되는 상황이다. 가장의 권위를 빌어 어머니의 일탈 행위를 비난하는 오빠는 ‘당신은 X이다’라고 판단하는 주체의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언니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관계는 역전된다.

어머니가 거꾸 이틀을 돌아오지 않자 오빠는 오랜만에 언니의 코피를 터뜨렸다. 고스란히 엮드려 맞던 이제껏과는 달리 언니는 고개를 뺏뺏이 들고 소리쳤다.

그 바람둥이년, 거짓말을 한 거야. 난 오빠가 그 계집애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 더러운 짓을 안단 말야.

한쪽 벽에 버티어 선 거울은, 줄줄이 피를 흘리고 있는 버짐 투성이의 메마른 계집애를, 슬픔과 증오와 수치심으로 비참하게 일그러진 열여섯 살 사내아이의 초라한 모습을 비추며 오연히 변죽였다. 오빠는 참담한 얼굴로 거울을 노려보다가 발길로 걷어찼다. 삼시간에 방은 발 디딜 자리도 없이 잘디잔 거울 조각으로, 번득이며 튀어오르는 빛으로 가득 찼다. 저녁마다 화장을 하던 어머니의 얼굴이 천 조각 만 조각으로 깨어졌다. 그리고 오빠는 그 천 조각 만 조각의 얼굴에 결별을 고하듯 슬프고 초라하게 어깨를 늘어뜨리고 물끄러미 바라보았다.³⁰⁾(밑줄: 인용자)

‘죽은 듯 엮드려 얌전히 매질을 당’하던 언니가 서분과 밤늦게 돌아오는 오빠의 행위를 ‘바람둥이년’과의 ‘더러운 짓’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장으로서의 오빠의 지위를 흔드는 것이다. 도망간 어머니 대신 아버지에게 매 맞는 순자처럼 언니는 오빠의 매질을 견뎠으나, 오빠 스스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자 언니는 오빠의 매질에 반기를 들고 저항한다. 그 결과 오빠는 금지 행위를 규정하는 자에서 행위를 평가받는 자로 전락한다. 그럼으로써 오빠가 지키고자 했던 가장으로

30) 위의 책, 58면.

서의 권위는 깨어진다.

결국 전통적인 가부장제 규범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고자 한 오빠의 욕망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문화에 의해, 그리고 ‘거짓말’과 ‘더러운 짓’이라고 호명하는 언니에 의해 좌절된다. 오빠의 이러한 좌절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유학을 통해 출세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문화를 절대화하는 오빠의 모습이 그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전쟁’으로 인해 피난지로 내몰려 ‘도둑놈’이나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 동반된 사회적 폭력성에서 찾아져야 한다.

4. 말의 질서 거부와 행위 주체의 저항성

규범을 수행하는 말화 행위를 통해 주체가 되고자 하는 오빠와 달리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할머니와 어머니, 오빠, 언니가 ‘나’에게 말을 걸면서 소통을 시도하지만 ‘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말을 하지 않는 대신 끊임없이 느끼고, 생각한다. 작품 결말 부분에 가서야 ‘나’는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모시고 가거라.”라는 교장선생의 말을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나’의 태도는 ‘말’에 의해 인용되고 반복해서 수행되는 ‘의례’와 권위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 처음 ‘나’는 타인의 다양한 행동을 모방한다. 된장을 퍼오라는 할머니의 요구에 ‘나’는 그동안 보아왔던 할머니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 또한 어머니의 거울 앞에서 언니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연극을 하면서 역할을 익힌다. 언니가 오빠 몰래 밤 외출을 할 때면 함께 따라 다니면서 저잣거리의 분위기를 체험한다. 이

러한 행동은 여러 번에 걸쳐 반복되는 행위로 제시됨으로써 ‘나’가 규범과 관습을 반복해서 인용하면서 수행적 주체로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 이러한 진행 과정에 제동이 걸린다.

두 번째 단계, ‘나’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머니와 오빠의 질서로 다스려지는 세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어머니나 오빠의 질서에 무서움을 느끼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흠쳐 먹는’ 짓을 반복하면서 자족적인 만족과 쾌감을 느낀다.

‘나’가 말을 거부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술을 먹고 집에 돌아와 누운 어머니는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을 한다.

죄 될 소리지만…… 난 개가 어쩐지 내가 낳은 애 같지 않아요.

잠이 드는가 싶었던 어머니가 술기 가신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할머니는 돌아앉아, 발에 들기름을 바르며 대꾸가 없었다. 석유탄과 들기름내가 뒤섞여 그을음처럼 거뭇게 방을 채우고 있었다. 할머니는 난리 통에 파편을 밟아 댄 발에 밤마다 들기름을 바르고 기름종이로 썼다.

어머니는 별반 대꾸를 기다리는 기색도 없이 말을 계속했다.

……웃지도 않고 말도 않고…… 다른 애들하곤 달라요. 멍청하고 걸귀가 들렸는지 노상 먹을 생각밖엔 없어요. 좀 모자라는 게 아닌가 몰라…… 일곱 살이 되도록 오줌을 싸고…… 그것도 내년에는 학교에 넣어야 하는데. 어린애가 자꾸 살이 찌니 병인지도 모르겠어요. 몸에 물이 차면 그렇게 붓는 수가 있대요.

노랑눈이보다 막내가 걱정이다.³¹⁾

31) 위의 책, 32면.

어머니는 ‘멍청하고 걸귀가 들렸’다, ‘좁 모자라’다, ‘살이 찐다’, ‘병’에 걸렸다면 ‘나’를 다른 애들과 ‘다르다’고 여기고, 자신이 낳은 애 같지 않다고 부정한다. 어머니의 발화를 통해 ‘웃지도 말하지도 않고’ ‘모자라’고 ‘병든’ 아이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정상’의 범주에 넣을 수 없는 ‘나’에 대한 부정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의 인식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할머니의 몸에 대한 경멸의 연장선상에 놓인다. 여기에서 ‘나’는 ‘노랑눈이’로 호명된다. ‘노랑눈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의 표지로서 ‘나’에게 이름 대신 명명된 별칭이자 낙인인 셈이다.

어머니와 오빠의 질서로 다스려지는 세계, 곧 ‘금기-형벌’로 지배되고 존재가 부정당하고, 소문과 낙인의 말로 어떤 대상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조장하는 말의 질서는 ‘나’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줄 뿐이다.

(i) 사람들 말대로 부네는 몸쓸 병을 앓고 있는 걸까, 미처서 짐승처럼 재갈 물리고 손발 묶여 갇혀 있는 걸까. (중략) 부네, 나는 그녀를 한 번쯤 본 듯도 하고 전혀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도 창호지 한 겹 너머 문의 안쪽에서 숨쉬고 있는 그녀를 생각할 때면 이상한 두려움과 가슴 한 귀퉁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에 잠기곤 했다.³²⁾

(ii) 후에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할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하고(어머니는 첩에게 빨렸다는 말을 썼다) 돌아간 후, 화류계 여자들이 흔히 그렇듯 자식을 낳지 못한 할머니는 쪽 혼자 살고 있었다고 했다.³³⁾

간헐 부네에 대한 사람들의 말은 ‘나’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불러 일으킨다(i). 어머니는 할머니가 기생이고 첩이었다고 경멸하고, 할

32) 위의 책, 22-23면.

33) 위의 책, 38면.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재산을 탕진하게 만든 것이라고 여긴다(ii). 할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이러한 인식은 철저히 가부장제 질서에 길들여져 그 사고를 재생산함으로써 질서의 안위를 도모하려는 데 놓여 있다. 그런 점에서 어머니와 오빠는 동류이다.

‘금기-형벌’을 일삼는 작은 폭군과 같은 오빠가 아버지의 자리를 대체한 이후, ‘나’는 오빠에 대한 무서움으로 ‘더러운 이불 속에서 쥐처럼 손가락을 빨아’댄다. 오빠는 ‘나’에게 무서운 존재이다. 오빠가 ‘연민과 동정에 찬 눈길’로 ‘나’를 바라보아도 오빠에 대한 무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무서움은 단순히 오빠의 ‘금기-형벌’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나’의 무서움은 끊임없이 들려오는 ‘대포 소리’가 상기시키는 전쟁에서 비롯된다. 아버지의 부재 역시 전쟁 때문이고, 오빠가 폭군처럼 군림하면서 피난지 가족들의 행동거지를 단속하는 것도 전쟁 때문이다.

오빠에 대한 무서움을 견디려는 ‘나’의 행위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결핍을 메우려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풋감을 주워 먹고, 흰쌀밥, 고구마를 훔쳐 먹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i) 저녁을 먹은 후 바람이 서늘해지면 아버지는 나를 어깨 위에 태우고 밖으로 나갔다. 아버지의 무릎을 타면 어찌나 높던지 나 자신 풍선처럼 공중에 둥실 떠오르듯 눈앞이 어지러이 흔들렸다.

곧 동생이 태어날 거다. 아버지는 내 넓적다리를 꼭 쥐며 노래 부르듯 말했다. 엄마 뱃속에 아기가 들었단다.

꼭 잡아, 아버지의 말에 따라 아버지의 머리를 잡으면 손에 찢뜩찢뜩한 머릿기름이 묻어났다.

아버지는 내게 연약한 넓적다리, 혹은 발목을 잡던 악력(握力), 막연히 따스하고 부드러운 것, 보다 커다란 것, 땀으로 젖어 있던 등허리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억 역시 내

상상이 꾸며낸 더 먼 꿈속의 일은 아니었을까.³⁴⁾

(ii) 부네도 자고 있을까. 어두운 밤 홀로 깨어 누워 있으면 무서운 생각만 잇달아 떠오른다. 무서움을 잊기 위해 한 알씩 아껴 가며 오래도록 씹었는데도 한 움큼의 밥은 거짓말처럼 없어졌다. (중략) 할머니가 삶아 둔, 밤마다 우는 동생을 달래기 위한 고구마는 찬장의 냄비 속에 숨겨져 있었다. (중략) 나는 살그머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주머니에 엉겨붙은 고구마가 손에 찢득찢득 묻어났다.³⁵⁾

(iii) 나는 사탕의 단맛을 아껴 되도록 천천히 빨며 먼지가 폴폴 이는 길을 걸었다. 쿵, 쿵, 먼 데서 대포 소리가 들려 왔다. 멀리 보이는 몇 개의 겹쳐진 능선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나는 자주 멈춰 서서 입 안의 사탕을 꺼내 눈앞에 들어 올려 작아진 정도를 살피고는 주머니에 넣었다. 열 발자국 정도를 걸어 입 안에 남은 단맛이 말끔히 가신 후에야 다시 사탕을 빨았다. 때문에 손가락들은 끈끈한 사탕기로 물갈퀴처럼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 않았다.

신작로의 끝에 언니가 다니는 학교가 있었다. 나지막한 단층 목조 건물이었다. 운동장을 두른 탱자나무 울타리가 드터어진 교문 앞에서는 숨사탕장수가 틀, 틀, 틀, 틀, 사철구름 같은 숨사탕을 피워 올렸다.³⁶⁾(밑줄: 인용자)

‘나’는 무서움을 이겨내기 위해 ‘먹는다’. “밥알의 들큰한 맛이 입에 남아 있는 동안은 무서움을 잊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나’의 행동의 이면에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결핌을 메우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아버지의 머릿기름에서 묻어나는 ‘찢득찢득한’(i) 촉감은 동생 뒤통으로 남겨둔 고구마를 먹을 때 주머니에 엉겨 붙은 고구마가 손에 ‘찢득찢득’(ii) 묻어나는 촉감을 환기시킨다. ‘밥알의 들큰한 맛’, 고구마의 ‘단맛’을 혀로 녹이며 ‘끈끈한 손

34) 위의 책, 47-48면.

35) 위의 책, 30면.

36) 위의 책, 42면.

가락을 뿌리까지 찬찬히 빨아대는 행동은 '사탕'(iii)의 단맛을 아껴가며 맛보는 '나'의 행위로 이어진다. '사철구름 같은 솜사탕'(iii)은 '풍선처럼 등실 떠오르듯'(i) 했던 아버지가 무등 태워주던 기억과 연결된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기억은 현실의 억압에 짓눌려 단편적으로 제시될 뿐이다. '나'는 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린다. '나'가 받아들이는 세계는 피난지에 오기 전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 '나'의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가 보여주는 세계는 폭력적인 가부장제 질서와는 거리가 먼, 부드럽고 따스한 세계이다. 그것은 전쟁 이전의 세계이자, 아버지의 무등을 탄 높이에서 세상을 볼 수 있었던 세계이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받아들인 세계가 사실에서 비롯된 것인지, 상상에서 비롯된 것인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 세계가 '나'가 바라는 세계를 표상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감각으로만 남아 있다. 이발사의 머릿기름 냄새에서 아버지의 머릿기름 냄새를 떠올리고, 아버지를 닮아 오빠의 키가 크다는 할머니의 말에 아버지가 키가 컸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매우려는 '나'의 무의식적이면서도 강박적 행위를 통해서만 환기된다.

세 번째 단계, '말'의 재맥락화이다. '나'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징계의 규범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말'이 아닌 '감각'에 의해, 인간이 아닌 '자연물'과 소통하고 교감한다. 이때, 어머니와 오빠에 의해 요구되는 '말'의 질서는 '나'의 '재맥락화 하기'에 의해 기존의 담론적 질서로부터 벗어나 재배치됨으로써 새로운 의미로 거듭나거나 혹은 전복된다. '말'의 질서가 아닌 '자연'과의 감각적 소통에 의해 '나'는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과 그 흐름을 간파해낸다. '나'의 오감을 통해 드러나는 자연은 규범을 수행하는 '말'에 오염된 인간의

몸을 자연의 질서로 재해석하도록 이끈다.

(i) 딸은 무성한 그들로 더욱 창창하고, 장마가 견힌 지 오래 건만 축축한 흙에서는 지렁이가 꾸물대고, 흙담 새막이 위로 노래기들이 분주히 기어다녔다.³⁷⁾

(ii) 밤의 저잣거리는 늘 재미있었다. 나는 밤이 되어도 식지 않는 더위에 치마를 걷고 언니 또래 틈에 쥐새끼처럼 끼여 앉아 밤거리에 음험하게 끓어오르는 알 수 없는 열기, 끈끈한 정념으로 가득 찬 달착지근한 공기를 들이마셨다.³⁸⁾

(iii)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풀벌레가 찌룩찌룩 맑게 울고 그 소리에 가만히 귀를 모으노라면 내 몸은 아주 얇고 투명한 껍질이 되어 샷자리 밑을 빠르게 달려가는 그리마의 발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중략) 그리마의 수많은 발들이 더욱 분주히 어둠을 갉아 대고, 베개를 베지 않고 자는 우리들은 맹렬히 이를 갈았다.³⁹⁾

(iv) 맹렬히 이빨 가는 소리 속에 우리들이 저마다 뿔어대는 땀 냄새, 떨어져내리는 살비듬내, 풀썩풀썩 끼어대는 방귀 냄새, 비리고 무구한 정욕의 냄새, 이 모든 살아 있는 우리들의 냄새는 음험하게 끓어올랐다.⁴⁰⁾

오감으로 인식하는 세계는 ‘나’에게 자연물의 움직임, 변화, 생성과 소멸까지 모두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려준다. 딸에는 쟁쟁한 햇빛과 더불어 그늘이 창창하고, 장마가 견힌 여름날에도 그늘 아래로 축축한 흙 속에 지렁이가 꾸물거리고, 흙담 위로 노래기들이 기어다닌다. 그런 여름이면 밤의 저잣거리에 사내애들과 계집애들이 무리지어 앉아 사내애들의 희롱에 ‘킁킁 웃어대거나 소리 높여 노래를 불러 댄다. 음험하게 끓어오르는 열기나 끈끈한 정념 등은 ‘딸’의 풍

37) 위의 책, 18면.

38) 위의 책, 25면.

39) 위의 책, 33면.

40) 위의 책, 34면.

경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밤이면 그리마가 샷자리 밑을 분주히 돌아다니는 소리를 ‘나’는 듣는다.

‘나’가 오감으로 인식하는 세계는 자연의 순환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리고 ‘나’는 오감을 통해 ‘뜻감’이 익어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세계와 소통한다. ‘뜻감’은 ‘위로처럼 따뜻하고 축축이 목안으로 차오르면서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는 ‘뚝은 맛’과 ‘들큰한 맛’이 공존하는 것이다. 할머니는 닭을 잡아 식구들을 먹이면서 ‘안 먹던 음식을 먹고 체할 것을 염려하여 ‘나’에게 ‘호렴’을 먹인다. 그것은 짜고 쓴 맛이다. 뜻감의 ‘들큰하고 뚝은 맛’은 ‘나’에게 ‘위로’를 주고, 안 먹던 것을 먹으면 탈이 날 것을 염려하여 할머니가 먹이는 호렴의 ‘짜고 쓴 맛’은 자연이 주는 혹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터득한 ‘경계’와 ‘염려’를 담고 있다.

이 세계에서 ‘나’는 부네가 보여준 침묵의 세계를 이해하는 한편으로 서러움을 느끼고, 할머니를 통해서 ‘거꾸로 선 풍경’의 세계와 소통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연스러운 감정을 경멸하고 억누르는 오빠의 질서, 아이를 낳지 못한 할머니를 경멸하면서 가부장제 질서를 확대 재생산하는 여성의 몸만을 긍정하는 어머니의 질서를 거부한다.

(i) 하늘과 구름과 나무가 곤두박질치듯 빙 돌며 물구나무를 섰다. 느닷없이 물 속에 거꾸로 박힐 때 나는 본능적인 두려움과 거부감으로 발버둥을 쳤지만 머리 밑을 흐르는 물의 감촉에 곧 익숙해졌다. 나는 팔을 늘어뜨리고 조용히 거꾸로 비치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중략) 개울 바닥, 돌부리에 비로드처럼 부드럽고 푸른 이끼가 숨어 자라는 것이 보였다. 물 속에 잠긴 눈에 비친 거꾸로 선 풍경은 언젠가 보았던 듯 몹시 친숙한 것이었다.⁴¹⁾

41) 위의 책, 39면.

(ii) 할머니의 벗은 몸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시들고 메마른, 거뭇거뭇 꽃이 핀 팔다리와는 달리 속살은 눈부시게 희고 특히 어머니처럼 다산의 흉한 주름이 없는 배는 둥글고 풍요했다. (중략) 할머니는 아름다웠다.⁴²⁾

(iii) 나는 흙을 털어내고 손바닥으로 문질러 반짝 윤을 내고는 가만히 젖은 발을 집어넣었다. 발목이 꺾일 듯 휘청 앞으로 고꾸라졌다. 나는 신을 벗어 댕돌 위에 나란히 놓은 뒤 방문에 눈을 갖다 대었다. 안은 어두워 촘촘한 문의 칸살 사이로 아무 것도 눈에 잡히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여느 때의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다.⁴³⁾

‘나’는 ‘꽃봉지’라는 할머니의 이름을 ‘새까맣게 여문 씨앗이 배게 들어찬 주머니’로 해석함으로써 불임의 몸으로 여겨지는 할머니의 몸을 재맥락화한다. 할머니의 벗은 몸을 보면서 아이를 낳지 못한 할머니의 몸이 경멸받아야 할 몸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 ‘나’의 시선에는 속살이 희고 둥글고 풍요한 할머니의 몸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시선의 변화는 ‘거꾸로 선 풍경’을 친숙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이루어진다. ‘거꾸로 선 풍경’이 ‘언젠가 보았던 듯 몹시 친숙한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일종의 탄생의 순간에 대한 비유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오는 몸, 양수에서 자라다가 어머니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그 순간 인간의 몸에는 어떤 낙인도, 소문도 새겨져 있지 않다. 인간의 몸에 소문과 낙인을 새기는 딸의 질서가 아닌, 그러한 시선을 배제한 거꾸로 된 세계에서는 할머니의 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다.

‘나’의 이러한 시선을 통해 ‘의심받고 경멸받는 몸’은 ‘욕망을 가진 아름답고 풍요한 몸’으로 재맥락화 된다. 그러한 깨달음은 부네를 보는 ‘나’의 시선 역시 변화시킨다. 갇힌 부네가 ‘문등병’에 걸렸을

42) 위의 책, 39-40면.

43) 위의 책, 47면.

것, 혹은 미쳤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말에서 ‘나’는 부네가 짐승처럼 재갈 물리고 손발이 묶여 갇혀 있는 모습을 연상한다. 그렇지만 부네의 방 마루 밑에서 ‘하이힐’을 발견하고 부네가 몹쓸 병에 걸린 병자나 짐승이 아니라 ‘살아 있음’을 욕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의 ‘말’이 조장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 조장된 부네에 대한 공포, 무서움,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나’는 부네를 향한 새로운 감정을 갖게 된다. ‘서러움’이 그것이다. 소문에 담긴 사람들의 인식을 경유하여 부네를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자 부네의 심정을 조금씩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나’가 부네의 아픔을 받아들이기까지는 할머니의 파편에 덴 상처와 그 상처를 감추고 치유하려는 노력에 대한 관찰이 전제된다. 그러나 부네의 상처와 아픔은 할머니가 파편에 덴 발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과는 그 층위가 전혀 다르다.

(i) 할머니는 난리통에 파편을 밟아 덴 발에 밤마다 들기름을 바르고 기름종이로 찌다.⁴⁴⁾

(ii) 할머니는 씨암탉처럼 아기작아기작 암전히 걸어 들어왔다(그러한 걸음이 파편에 덴 발이 절룩이는 것을 감추려는 필사적인 노력임을 안 것은 그 얼마 후 맨 처음 닿은 피난지에서 몸을 푼 어머니의 산구완을 할머니가 도맡게 되면서부터였다.)⁴⁵⁾

(iii) 파편의 화상으로 밤마다 허물을 벗는 연한 분홍빛의 발은 물살에 따라 흘러와 쌓이는 모래 속에 묻혀 갔다. 물 가운데 우뚝 선 할머니는 물감처럼 얇게 한없이 풀리고 내 주름지고 불품없는 가랑이 사이에서 거품을 내고 흘러갔다.⁴⁶⁾

44) 위의 책, 32면.

45) 위의 책, 37면.

46) 위의 책, 40면.

(vi) 어느새 부네의 방문은 옅은 햇빛에도 녹녹히 잠겨들고 있었다. 나는 잣아드는 부네의 방을 보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러움이 가슴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불현 듯 달힌 방문의 안쪽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어쩌면 약한 탄식 같기도, 소리 죽인 신음 같기도 했다.

아아아아아아 (중략)

그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다. 분가루처럼 옅게 떨어져 내리는 햇빛뿐이었다. 내가 들은 것은 환청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입 안쪽의 살처럼 따뜻하고 축축한 느낌이 내 몸을 둘러싸고 있음을, 내 몸 가득 서러움과 같은 욕정이 차올라 해면처럼 부드러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떠돌던 고추잠자리가 잠깐 물에 스킨듯 쫓지를 담갔다 뻗 순간이었을까.⁴⁷⁾

(v) 나는 방으로 들어와 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섰다. 몸의 근육을 조금도 긴장시키지 않고 축 늘어뜨리고 불룩 튀어나온 배와 작고 주름진 가랑이를 물끄러미 보며 나는 까닭 없이 흐느꼈다.⁴⁸⁾

(i)~(iii)에서 보듯, 할머니는 난리통에 파편을 밟아 발을 데인다. 그래서 발을 절룩일 수밖에 없으나 할머니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자 ‘씨암탉처럼 아기작아기작 얌전히’ 걷는다. 그리고 밤마다 상처 난 발에 들기름을 바르고 기름종이로 싰다. 그러한 노력으로 다친 발의 상처를 감추고 치유하고자 한다. 전쟁으로 생긴 ‘절름발이’라는 몸의 상처를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인 것이다. 반면 (iv)~(v)에서 보듯, 부네의 몸 위에 새겨진 것은 몸의 상처가 아니라 각종 소문들이다. 그 소문들은 부네가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시킨다. 자신에게 새겨진 소문을 감출 수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도 없게 된 부네는 결국 스스로 혀를 깨물고 자살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런 부네를 보면서 ‘나’가

47) 위의 책, 49-50면.

48) 위의 책, 50면.

‘서러움’을 느끼는 까닭은 부네의 아픔이 할머니처럼 몸에 난 상처가 아닌데도 치유할 수 없고, 어떠한 노력으로도 감출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리고 부네가 혀를 깨물고 자살하도록 몰고 간 그녀의 아픔이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주어진 욕망하는 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그 몸은 ‘나’의 몸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 ‘나’를 서럽게 만든다. 숨겨지고 쉬쉬하는 가운데 부네의 죽음은 잊혀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는 발가벗고 거울 앞에 서서 ‘부네’의 몸과 다르지 않은 자신의 몸을 보면서 부네의 죽음을 ‘애도’한다. 그럼으로써 부정당하고, 아예 없었던 사람처럼 취급되어야 하는 부네의 죽음을 스스로의 슬픔으로 가져온다.

이 지점에서 ‘나’는 경멸받고 부정당하는 삶은 비단 여성의 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피난민으로서의 삶 역시 부정당하고 경멸받는다는 것을 ‘나’는 체험한다.

우리가 살았던 자취는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사내의 힘찬 삽질에 의해 점차 깊어지는 방 가운데의 구덩이를 보며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서러움으로 눈물이 들었다. 새 주인의 삽질에 의해 뜰의 어느 구석에서인가 재 묻은 닭털이 끌려나오고 부서진 거울 조각들이 흙과 뒤섞일 것이다.⁴⁹⁾

‘나’는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예전에 살던 집으로 간다. 그곳에는 새 주인이 들어와 집을 손질하고 있다. ‘지신이 들떠 변소와 헛간을 새로 짓’는다는 새 주인은 ‘나’의 가족이 살았던 흔적을 헐고 삽질을 한다. ‘나’는 새 주인의 삽질에 의해 입자 없는 닭을 잡아먹었던 흔적, 오빠가 서분과의 일로 수치심에 못 이겨 산산조각 낸 등신대의 거울 조각들이 끌려 나오게 될 것을 부끄러워한다. 빈손으로 떠나와

49) 위의 책, 61면.

피난지에서 궁핍한 삶을 영위해야 하는 피난민 가족의 삶은 ‘나’의 가족이 그러하듯 ‘거지’, ‘도둑놈’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한 피난민 가족의 삶의 흔적은 그 치열한 삶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깡그리 지워진다. 흔적이 지워지고 남는 건 오로지 ‘죄’밖에 없다. 서러움과 부끄러움은 바로 그것에 연유한다. 이 서러움과 부끄러움으로 인해 ‘나’는 더욱더 오빠와 어머니의 질서와 규범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나’의 오감으로 교감하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모든 것을 재맥락화하는 태도를 취한다.

네 번째 단계, ‘구토’하는 몸으로 ‘딸’ 전복하기이다. ‘나’는 학교에 들어가면서 오감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을 잃어버리고, 고구마의 단맛과 같은 자연의 단맛이 아닌 사탕의 단맛과 같은 인위적인 단맛의 쾌감에 중독되어 학교에서 배우고 시키는 대로 ‘딸’을 따라 한다. ‘딸’을 거부하고 자연과 오감으로 소통하던 ‘나’는 뚝은 맛, 쓴맛, 짠맛이 주는 ‘위로’와 ‘경계(儆戒)’와 ‘염려’를 잃어버리고 오직 인위적인 ‘단맛’에 길들여진다. ‘나’는 어머니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 ‘사탕’을 사먹는다. 남의 것을 훔쳐 먹는 ‘나’를 호되게 야단치는 할머니와 달리 어머니는 ‘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갑에서 ‘나’가 돈을 빼내어가는 것을 모른 채 한다. 그럼으로써 부정당한 존재의 억눌린 욕망을 단맛을 통해 배설하도록 허용한다.

‘나’는 단맛에 길들여진 결과, 오감으로 자연과 더불어 교감하고 소통하던 방식을 잃어버리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딸’의 질서를 따르게 된다. 학교에 입학한 ‘나’는 국어 교과서의 글을 따라 읽고, 미술 교본의 튜립 화분 그림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 그린다.

이러한 ‘나’는 아버지의 귀환 소식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단 것’에의 무조건적인 탐닉, 다른 하나는 자기혐오이다. ‘나’는 교장 선생님이 아버지가 오셨다고 일러 준 말을 의미 없이 따라하면서, 다만 케이크를 먹을 생각에 케이크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나는 이러한 광경을 보며 주머니 속의 케이크를 꺼내 베어 물었다. 그것을 다 먹고 냈을 때 갑자기 욕지기가 치밀었다.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꾸역꾸역 토해냈다. 단 케이크는 한없이 한없이 목을 타고 넘어왔다. 까닭모를 서러움으로 눈물이 자꾸 자꾸 흘러내렸다.⁵⁰⁾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가 오셨다는 소식에 거위처럼 팔을 흔들며 달려가는 언니와 달리 ‘나’는 훔친 케이크를 변소에서 꺼내 먹으면서 강박적으로 단맛을 탐한다. 언니는 바람난 어머니 대신 오빠에게 매질을 당하며 금기의 윤리에 ‘거위’처럼 길들여진다. 반면 금기 위반의 쾌감을 ‘단맛’을 통해 향유한 ‘나’는 그동안 길들여져 왔던 ‘단 것’에 대한 탐닉을 마지막으로 시도한다. 유일하게 허락되었던 욕망의 배설구로서 단맛의 쾌감은 아버지의 귀환으로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난지에서의 곤궁한 삶은 ‘우리’가 입자 없는 닭의 맛에 길들여지도록, 또 할머니가 단말마의 비명도 없는 도살의 비기를 익히도록 만들었다. 그렇듯 아버지 역시 전쟁을 통해 인간 백정을 방불케 할 살육과 잔인함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 전쟁은 외늬박이 목수의 방식을 취할 수도, 혹은 언니의 오학년 때 담임 선생인 순자 아버지의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감금과 매질, 폭력을 동반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나’는 케이크를 토해내며 까닭모를 서러움을 느낀다. ‘나’는 전쟁으로 인한 무서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결핍, 오빠에 대한 무서움을 이겨내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존재가 부정당하는 ‘딸’로 인한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 ‘딸’의 질서를 거부하고 자연과 교감했다. 그러다 학교에 입학하면서 어머니의 지갑에서 도둑질한 돈으로 얻게 된 ‘단맛’의 쾌감에 길들여져 ‘유년의 딸’에서 감각

50) 위의 책, 65면.

했던 자연의 순환에 따른 오감의 소통 방식도, 전쟁 이전에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따스한 세계에 대한 갈구도 잊어버렸다. 그러한 ‘나’에 대한 혐오가 ‘구토⁵¹⁾’를 유발한다. ‘구토’는 ‘몸’에 의한 저항을 보여준다. 이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치 어두운 뚱뚱 속에 감춰져 있던 구더기들처럼 아버지가 오셨다는 소식에도 케이크를 먹을 생각에만 골몰한 자신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자기 평가에 대한 첫 질문은 이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다. 피난지에서의 어머니와 오빠의 질서,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 돌아온 아버지에 의해 만들어질 질서는 소문과 금기와 형벌과 폭력으로 얼룩진 부정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나’는 ‘딸’을 따라함으로써 아버지와 학교로 표상되는 질서를 수행하는 척 하면서 사실상 구토하는 ‘몸’을 통해 그 ‘딸’을 내부로부터 전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나’는 미국 중심주의와 출세지향주의, 가부장제 질서 등 이 모든 사회 규범과 관습을 전복할 저항성의 토대⁵²⁾를 마련한다.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유년의 뜰』에 나타난 다양한 ‘딸’에 주목하여 피난지

51)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아버지의 귀환으로 인해 가족들에 대한 응징과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나’의 두려움이 ‘구토’로 나타난다고 본다. (심진경, 앞의 글, 205-250면.; 이정희, 앞의 글, 32-45면.) 그러나 수행성에 따른 발화 행위에 주목하는 관점에서 본고는 ‘구토’ 행위에는 두려움과 함께 ‘몸’의 저항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52) 버틀러는 낡은 고정된 주체가 이론적인 죽음을 맞이했다고 보고, 전복적인 가능성과 지향적 행위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구성된 주체의 탄생을 강조하면서 전복은 모든 기존의 담론 안에 위치해 있으므로, 그 안에서 발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S. Salih, 앞의 책, 122면.

에서 ‘나’의 가족, 특히 ‘오빠’와 ‘나’가 변화하는 모습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2장에서는 학교 교육과 미국 유학을 통한 출세라는 규범을 수행함으로써 주체가 되고자 하는 오빠의 욕망과 좌절을 다루었다. 미국 중심의 서구지향성과 출세지향주의와 같은 인식은 당대 사회, 문화, 관습, 언어, 금기 등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오빠는 그러한 사회 규범이나 관습을 반복적으로 발화하고 행하는 가운데 언어에 예속된 주체로 정립된다. 먼저, 오빠는 영어 교과서의 문장(훗 아 유 두잉)을 읽으며 학교 교육을 통해 출세하고자 하지만 전쟁과 가난, 어머니의 외도 등으로 인해 진학하지 못한다. 주인집 딸로 도회지에서 미국인 집 식모를 하는 서분을 통해 오빠는 생활 영어 문장(아임 낫 라이어)을 익히며 미국인 집의 고용인이 되고자 하나 그것마저 불가능해지자 오빠는 피난지 저잣거리의 사내아이들처럼 비루한 존재로 전락한다.

3장에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질서의 규범을 수행함으로써 주체가 되고자 하는 오빠의 욕망과 좌절을 다루었다. 오빠는 피난지에서 부재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 노릇을 수행하기 위해 어머니의 발화나 정주민 가장들의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인용한다. 처음 오빠는 ‘훗 아 유 두잉’이라고 묻는 호명하는 주체로서, ‘금기-형벌’로 수행되는 가부장제 질서의 발화와 행위를 반복적으로 인용하면서 가족들을 폭력적으로 지배한다. 다음으로 서분과의 관계에서 오빠는 ‘아임 낫 라이어. 아임 어니스트 보이’라고 답하는 호명 당하는 주체가 된다. 서분은 호명하는 주체로서 미국인의 문화와 생활방식 등을 알려주며 오빠를 길들인다. 이 상황에서 오빠는 언니에게 가부장제의 금기를 위반한 ‘더러운’ 자로 규정받으면서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잃는다.

4장에서는 ‘나’의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행위 주체가 형성되는 과

정을 네 단계로 나누고, 지배적인 규범과 관습에 저항하거나 이를 전복시키는 전략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단계에서 ‘나’는 타인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행위 주체로 구성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 ‘나’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머니와 오빠의 질서를 거부하고 금기-형벌로 인한 무서움을 달래기 위해 ‘먹는다’. 세 번째 단계에서 ‘나’는 어머니와 오빠에 의해 요구되는 ‘말’을 자연과의 소통과 교감에 의해 재맥락화 함으로써 규범을 수행하는 ‘말’에 오염된 인간의 몸을 재해석하도록 이끈다. 네 번째 단계에서 ‘나’는 학교에 들어가면서 오감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을 잃어버리고 훔쳐 먹는 ‘단맛’에 길들여져 학교의 ‘말’을 따라하지만, ‘단맛’을 거부하는 구토하는 몸을 통해 새로운 아버지의 질서를 내부로부터 전복시킨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오정희, 『유년의 딸』, 『유년의 딸』, 문학과지성사, 1998.

2. 논문

김치수, 『전을 그리고 사랑』, 오정희, 『유년의 딸』, 문학과지성사, 1981

김현, 『살의의 섬뜩한 아름다움』, 오정희, 『불의 강』, 문학과지성사, 1987.

김병익, 『세계에의 비극적 비전-오정희의 소설들』, 『월간조선』, 1982. 7.

박혜경, 『신생을 꿈꾸는 불임의 성』, 오정희, 『불의 강』, 문학과지성사, 1997.

김경수, 『여성성의 탐구와 그 소설화-오정희론』, 『외국문학』, 1990. 봄.

심진경, 『오정희 초기소설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 『한국문학과 모성성』, 태학사, 1998.

임선숙, 『1970년대 여성소설에 나타난 가족담론의 이중성 연구: 박완서와 오정희 소설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논문, 2011.

이정희, 『오정희, 박완서 소설의 근대성과 젠더의식 비교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2001.

정재림, 『전쟁 기억의 소설적 재현 양상 연구: 유년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2006.

김미현, 『오정희 소설의 우울증적 여성 언어-『저녁의 게임』을 중심으로』, 『우리말글』49집, 우리말글학회, 2010, 253-274면.

정연희, 『오정희 소설의 욕망하는 주체와 경계의 글쓰기-『불의 강』을 대상으로』, 『현대소설연구』38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365-385면.

3. 단행본

Agamben, G.,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Bultler, J., 김운상 역,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인간사랑, 2003.

_____, 조현순 옮김, 『안티고네의 주장』, 동문선, 2005.

_____, 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_____, 유민석 역, 『혐오발언』, 알렙, 2016.

Kristeva, J., 서민원 옮김,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Salih, S., 김정경 옮김,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알피, 2015.



<Abstract>

The downfall and resistance of the families of
refugees in the form of the performativity of
perlocutionary act
—by Oh Jung-Hee “A childhood garden”—

Joo, Ji-Young

In this article, we took note of the various ‘speech’ in the “A childhood garden” and examined the meaning of ‘I’s family, especially ‘brother’ and ‘I,’ changing in the refuge area.

The second chapter dealt with the brother's desire and frustration to carry out the norm of school education and advancement through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First, the brother wants to get on the road through school education by reading the sentences(What are you doing) in English textbooks, but he cannot go on to study because of war, poverty, and mother's infidelities. Through “Seo-bun” an American housemaid, the brother learns English sentences (I am not a liar, I’m honest boy) and tries to become an employee of an American home, but even that becomes impossible. The brother is degraded to being a squalid like the boys on the street.

Chapter 3 dealt with the brother's desire and frustration to become the subject by carrying out the norms of the traditional patriarchal order. The brother repeatedly quotes his mother's words and acts of a regular resident in order to play the role of his absent father. The

brother, who is called “what are you doing,” rules his family violently by repeatedly quoting the words and actions of the patriarchal order performed as a taboo. Next, in his relationship with “Seo-bun”, the brother becomes the person who answers, ‘I’m not liar, I’m honest boy.’ “Seo-bun” is a person who teaches Americans about their culture and lifestyle. The brother loses his authority as the head of the family by violating the patriarch's taboo because of his something with “Seo-bun”.

In Chapter 4, we looked at the strategy of dividing the process of forming an action subject around the growth process of ‘I’ into four stages, and resisting or overthrowing the prevailing norms and customs. In the first stage, ‘I’ consists of an action subject by imitating the actions of others. In the second stage, ‘I’ rejects the order of mother and brother by not speaking and ‘eat’ to escape the fear of taboos and punishments. In the third stage, “I” leads the body to reinterpret the human body contaminated with “perlocutionary act” that carries out the norm by re-enacting the “perlocutionary act” required by the mother and brother by communicating with nature. In the fourth stage, “I” loses its way of communicating with the world through five senses as it enters school, but overthrows the new father's order from the inside through a vomiting body that rejects “sweetness”.

Key words: performativity, Oh Jung-Hee, A childhood garden, perlocutionary act, interpellation, patriarchy, Americanism, career-orientadism

투 고 일 : 2019년 2월 28일 심 사 일 : 2019년 3월 2일-3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9년 3월 15일 수정마감일 : 2019년 3월 27일